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⑤	2	⑤	3	②	4	②	5	④
6	④	7	③	8	④	9	③	10	③
11	①	12	⑤	13	②	14	②	15	⑤
16	③	17	①	18	①	19	④	20	①

1. [출제의도]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신의 본성[logos]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우렐리우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 위해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원불교와 동학사상 비교하기

갑은 원불교 사상가 박중빈, 을은 동학 사상가 최제우이다.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동학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한율님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야[守心正氣] 한다고 본다. 한편 원불교와 동학은 공통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後天]이 현세에 도래함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3.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과 탐구를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으며,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공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벌린과 폐팃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자유주의 사상가 벌린, 을은 공화주의 사상가 폐팃이다. 벌린은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으며, 개인의 삶에 대한 법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폐팃은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으며,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신앙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퀴나스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갈퉁의 평화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갈퉁의 주장이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갈퉁에 따르면 사회 제도나 관습에 따른 억압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8.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도덕적 얇[知]과 행함[行]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행위의 선후를 논한다면 얕이 먼저이나 경중을 논한다면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그릇된 의념[意]을 바로잡아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얕과 행함이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희와 왕수인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얕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이를 따르는 것이며,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것이라고 보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것으로 보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같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여 참된 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성적 숙고를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노자와 공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인간이 지닌 소박함을 유지하려면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에 얹매이지 않고 자연의 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공자는 인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는 덕치(德治)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흄과 스피노자와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스피노자이다. 흄은 감정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덕과 악덕은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자연의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지눌의 주장이다. 지눌은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진리를 깨달았더라도[頓悟],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아 몸에 벤 나쁜 습관이나 기운[習氣]을 점진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漸修]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칸트와 밀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밀이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으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으며, 궤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칸트와 밀은 공통적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실업과 불황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공통적으로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의(仁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을 인위[僞]의 결과로 보았으며, 성인(聖人)이 제정한 예(禮)로써 태어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로크와 흉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로크, 을은 흉스이다. 로크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한다고 보았으며, 국가 권력으로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흉스는 국가 권력이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로크와 흉스는 공통적으로 국가를 사회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사덕(四德)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四端)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단시설(端始說)을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자는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고[坐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心齋]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모어와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갑은 모어, 을은 마르크스이다. 모어의 이상 사회인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 있어 평등하며, 사회 구성원이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여가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는 계급과 국가가 사라진 상태로써, 사회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한편 유토피아와 공산 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